



월간 여(목)기자가 간다!

2022. 06월

New~~s flying from KCG HQ

산과 바다를 잘 아물담게

산해진미 플로깅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스웨덴어 '줍다'라는 의미의 '플로카' 우프와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합니다.

#1. What is it?

산해진미

산(山) 해(海) 진(眞) 미(美)
산과 바다를 잘 아물담게

해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자원봉사센터, SK이노베이션이 함께 육지 바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정화 프로그램 '산해진미 업무협약'을 체결해, 누구나 플로깅에 참여하면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How to join

참여방법

건강원격접수 플로깅 인증
mesondclear.org 활동 사진등록 후
의미 제공 인증

웹캠 회원가입 및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정보를 입력한 뒤 플로깅을 하고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자원봉사포털은 별도 회원가입 필요)

#3. Strong benefit

참여혜택

봉사활동 인정 건강+환경보호
1회 최대 2시간 일반 인정
1회 최대 8시간 일반 인정
1회 최대 25% 할인

중앙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또한 일반 조깅보다 운동효과가 좋아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위험유해물질의 분류?

▶ 관련 국제협약 : OPRC-HNS, HNS convention

OPRC-HNS: 기름을 제외한 물질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과 해양생물자원 또는 생명체에 해로운 물질

HNS convention : 기름을 포함한 분담 HNS 대상화물

- IBC : 산적액체위험물
- IMDG : 포장위험물
- IGC : 액화가스
- IMSBC : 산적고체위험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 기존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에 기능추가, 입력된 방제비용 현황을 DB화하고 방제비용의 통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MPRS

- 사고통계->사고 및 신고 등록
-> 조회 해당사고 클릭-> 방제비용 수정버튼 클릭

자세한 사항은 기 하달된 방제비용 산출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를 참고바랍니다. ^^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 해양오염예방활동 실시~!

[바다의 날??]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96년~), 국가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블루카본 중심의 정화활동

블루카본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수중·연안 정화활동

지역특화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지역별 캠페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플로깅, 해안정화 캠페인 추진

대국민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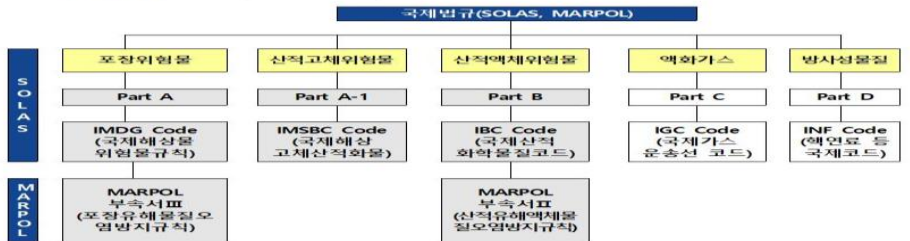
해양환경사진전시, 홍보물 배부
SNS를 활용한 정화활동 홍보 등

▶ 지역별 바다의 날 기념 정화주간(~5.30)을 운영했드랬죠..^^

해상 운송 위험·유해물질 (HNS) 목록집 제작~!



○ 국제법규(SOLAS, MARP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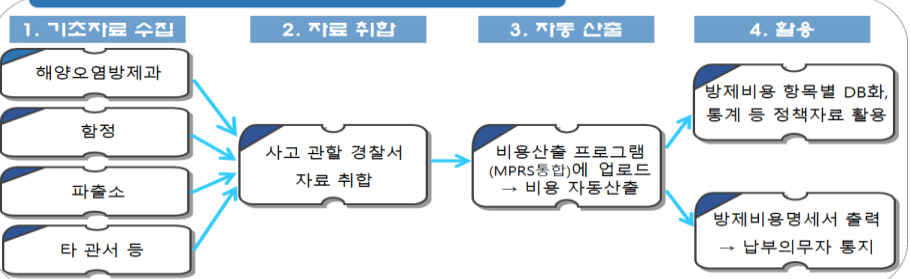


○ 국내법규(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입출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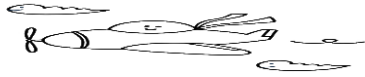
방제 비용 자동 산출을 위한 시스템 개선 알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방제비용 산출



▶ 기초자료(엑셀) 작성 후 시스템 업로드 시 방제비용 자동 산출~!





Let's Study Together



해상사고 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때~!!

공해상(High seas) 해양오염사고 시 How To Do 방제?? 2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 제14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 제217조 기국(flag States)에 의한 법령집행

- 제4항 : ~~기국은 위반발생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 제218조 기항국(Port States)에 의한 법령집행

- 제1항 :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 그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20조 연안국(Costal States)에 의한 법령집행

- 제3항 : ~~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위반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21조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1항 : ~~~실제상의 피해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영해 밖까지 취하고 집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양오염 방제조치 가능 여부】

1) 해양오염 방제조치

☞ (방제조치) 유엔해양법 협약 제221조 의거 공해상의 해양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유류가 대한민국 EEZ로 흘러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방제조치는 가능~!!** 그러나 방제조치 명령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규정으로 대한민국 관할권 내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해상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오염에 대한 방제조치 명령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비용청구) 대한민국 EEZ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방제조치를 한 경우 CLC92, BUNKER 협약에 가입한 기국의 선박은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사항이므로 **방제비용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오염 조사 등 관할권 적용 여부】

2) 해양오염조사

☞ (해양법 제217조) 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현행 국제법 상 공해상 선박 충돌사고 및 오염사고 발생한 경우에 기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EEZ 안쪽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방제조치는 가능하나, **형사처벌 및 오염사고조사 등의 형사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양법 제218조) 기항국에 의한 법령집행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관련 선박이 대한민국의 연안 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조사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 입항 시에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 (해양법 제220조) 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EEZ 내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발생 시 해당선박에 대한 **정보요구 및 거부 시 물리적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가 또한 가능합니다.